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베이커 주지사는 28일 글러스터 행사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CDC의 마스크 착용 방침 변경과 관련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매사추세츠에서는 바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글러스터 그랜트 제공행사 모습(사진 = 주정부 제공)

베이커, 매사추세츠는 달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해

매사추세츠 백신 접종율 63%, 다른 주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CDC 정책 정확하게 검토하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정책 발표
올가을 공립학교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고려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9일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델타변이로 인한 감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를 다시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글러스터에 있던 댐, 침수 보수관련 그랜트 제공행사에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 대부분의 주에 비해 코로

나 대응이나 대응 준비 노하우에 있어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 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63%의 백신 접종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보다 낮은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에서도 최근 꾸준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하루 평균 500- 6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빈스타운의 경우 7월 초 집단감염으로 6면으로 계속

백스밀리언 (vaxmillions) 웨이머스 남성과 첼시 청소년 당첨

다음 추첨일은 8월 2일, 앞으로 4차례 더 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신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백신복권 백스밀리언 첫 당첨자는 웨이머스에 거주하는 데럴 워싱턴으로 밝혀졌다.

베이커 주지사는 29일 웨이머스에 거주하는 워싱턴씨가 1백만불에 당첨됐으며 첼시에 거주하는 고교생 대닐라 말도나도(15) 학생이 30만불 장학금에 당첨됐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앞으로 4차례 더 추첨을 통해 4명의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 주민들에게는 1백만불을 12-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30만불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이번 백신 추첨은 지난 26일에 완료됐으며 발표는 29일 실시했다. 오늘까지 등록된 주민들은 다음 추첨에 포함되며 추첨일은 8월 2일, 확인과정을 거쳐 5일날 발표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2021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한국전 실종병사 유해 71년만에 보스톤 고향 찾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전쟁 당시 실종됐던 매사추세츠 출신 육군 병사가 지난 북미정상회담 유해송환으로 확인됐으며 71년만에 고향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AP가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담당기구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토마스 레드게이트씨의 유해는 9월 17일 본(Boume)에 위치한 재향군인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토마스 레드게이트씨

레드게이트씨는 육군 7사단 48야포대대 소속으로 1950년 장진호 전투(Battle of Chosin Reservoir)에서 실종됐으며 그해 12월 11일 실종이 보고됐다. '초신'은 장진호의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이 표기한 지도를 본 미국 등의 나라가 사용하는 지명이다.

레드게이트의 실종관련 정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실종 당시 그의 나이는 24세였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정상회담을 통해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한 후 55박스의 유해가 전달됐다. 이 유해는 하와이 소재의 DPAA의 실험실에서 DNA 검사

를 비롯한 인류학적 분석을 거쳤다. 그 중의 한 세트가 레드게이트씨의 유해로 판별됐다.

브라이언지역에서 태어난 레드게이트씨는 2020년 4월 그의 유해임이 밝혀졌으며 최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브리핑이 이뤄진 관계로 7월 28일에서야 공식 발표됐다.

레드게이트씨의 이름은 호놀룰루 국립현충묘지의 실종자코트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의 이름에는 이제 장미모양의 리본이 놓여져 그의 유해를 확인했음을 나타내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한인회 제75주년 8.15 광복절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한인회(회장 서영애)는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를 8월 15일 일요일 렉싱턴 소재 헤이스팅파크(Hastings Park)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한인회는 기념식 후 광복의 날을 기념하여 재기차기와 화살던지기(투호놀이) 등 민속놀이와 노래자랑, 그림글짓기대회(K-12),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양한 축제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상품으로 고국방문비행기표, 김치냉장고, 대형TV 그외 생활필수품들을 제공한다. 상품외에 점심을 한식으로 준비해 한인들에게 제공한다. 이외에 각종 한인 사업체들도 부스를 만들어 이날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백스밀리언 웨이머스 남성과 첼시 청소년 당첨

▶▶1면에 이어서 ▶▶24시간안에 당첨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 카드 등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커 행정부에 따르면 약 2백 10만여명이 백스밀리언에 등록했으며, 12-17세 장학금 추첨에는 14 만명이 등록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예매율 1위 한국영화 대작 모가디슈 보스턴 개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김윤석과 조인성이 주연한 류승완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가 8월 6일 보스턴에서 개봉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속에 올여름 개봉하는 첫 한국 영화 대작인 이 영화는 한국 개봉 당일인 7월 28일 영진위 통합전산망과 멀티플렉스 3사에 매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

류승완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인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내전과 기아, 테러로 얼룩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소말리아의 상황과 이들의 필사적인 생존과 탈출을 담았다.

김윤석과 조인성 외에 허준호, 김소진, 정만식, 구교환 등이 출연했다. 200억원대 제작비로 모로코에서 촬영을 마치고 지난해 여름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여파로 개봉을 미뤘다.

미국의 수입사인 웰고USA는 8월 6일부터 전 미주 주요 도시에서 모가디슈를 개봉한다. 보스턴에서는 6일 다운타운 AMC 보스턴커먼 19 (AMC Boston Common 19)에서 6일부터 상영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비어워크스 주내 5개 점포 모두 문닫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의 인기 수제맥주 레스토랑 비어워크스가 주내 5개 점포 모두 완전히 문을 닫는다.

보스턴 비어워크스는 웹사이트에 “보스턴, 샬럿, 로웰, 힉햄, 프래밍햄에 감사드립니다. 슬프지만 우리는 마지막 맥주를 만들어 여러분께 드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신선한 로컬 맥주와 음식을 여러분께 드렸던 것은 즐거움이었으며 이것이 그리울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 자랑스럽다” 고 적어 작별을 고했다.

이에 따라 비어워크스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져간 유명 레스토랑 및 호텔등

서비스 업체 중의 하나가 됐다.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동안 전체 레스토랑의 23%에 달하는 3,400여 업체가 문을 닫았다.

보스턴에서 가장 사랑받던 켄모어 스퀘어 이스턴 스탠다드, 아일랜드 크릭 오이스터 등의 레스토랑, 볼러드 바 등은 더 이상 보스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보스턴 비어워크스에서 추억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 남성은 “이곳은 술을 마시고 저녁을 먹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였다. 내 첫 데이트를 즐겼던 곳이며 각종 이벤트에 친구들과 함께했던 장소” 라고 밝혔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매사추세츠 107개 대학 중 65개 대학 백신 의무접종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의무화, 주립대 등 공립대는 강력권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대규모 대학 107개 중 65개 학교가 올가을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교직원의 백신접종의 의무화는 23개 대학만 의무화했다.

WBUR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백신접종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대학은 지난 7월 1일부터 접종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5월 각 대학지도부와 의사들로 구성된 주 워킹그룹에서는 각 대학들에게 학기 시작 전 100% 백신접종을 확보하도록 권장했다.

이 그룹의 리더인 폴라 존슨 웰슬리대학학

장은 플루 백신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종사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했을 때에만 90% 이상이 접종했던 점을 강조하며 “각 대학은 백신 접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롭 매케론 대학협회 회장은 지속적인 감염 검사를 실시하며 보낸 지난 학기를 큰 성공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캠퍼스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비롯 여러 층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킹 그룹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감염 검사는 전체 학생의 검사보다는 매주 특정 샘플 학생들의 검사를 권장했다.

워킹그룹은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비교적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주내 15개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강력하게 백신접종을 권장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저소득 그리고 이민자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이므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의 모든 15개 캠퍼스에 백신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은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클리 커뮤니티는 백신 접종학생들에게 \$1,000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의무화한 반면 교직원들의 의무화는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교직원들까지 의무화 한 대학은 대부분 잘 알려진 대형 사립대 들이다.

하버드대학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의무화를 지난 7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했으며 MIT, 보스턴대학(BU), 텡스(Tufts), 보스턴 칼리지(BC), 노스이스턴, 윌리엄스칼리지, 스미스칼리지, 버클리, 브랜다이스, 서퍽, 웰슬리칼리지, 에머슨, MCPHS, 클락 대학 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학교들은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종교적, 의학적인 이유로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면제 신청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프로빈스타운 집단발병 833명으로 폭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7월 초 처음 시작됐던 프로빈스타운 집단발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 총 833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프로빈스타운 알렉스 모스 타운매니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8일 68명의 확진자가 전날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스 매니저는 833 감염건 중 “501명은 매사추세츠 주민이며 이중 프로빈스타운 주민은 210명, 현재 7명이 병원에 입원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적 확진자 수가 결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숫자 또는 병원 입원자의 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7월 1일 이래 프로빈스타운에서 감염된 210명의 확진자 중 절반은 이미 격리에서 벗어난 상태” 라고 말했다.

특히 모스 매니저는 프로빈스타운의 집단감염이 이미 절정을 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프로빈스타운 양성확진율은 7월 15일 15%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7일 현재 5.9%를 기록했다. 일단 양성확진율은 1% 이하여야 집단감염이 진정국면에 든 것으로 판단한다.

hsb@bsotonkorea.com



주보스턴총영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일반직 행정직원 1명을 채용 중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 초기 화면의 뉴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kcgboston@mofa.go.kr 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등 세부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접수 마감시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 삭제 예정)



1. 채용 직종,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종	인원	담당 업무	근무시작일
일반직 행정직원	1명	공관장 차량 운전 및 공용차량 관리 청사 및 관저 시설관리	8월중(예정)

2. 응시 자격 및 지원 요건

- 미국 체류자격 유지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미 영주권자 또는 미 시민권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걸림 사유가 없는 자
- 미국 내 운전면허 소지자
- 영어 능통자
- 공관 업무수행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의무>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국적선택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오락가락 CDC 정책, 백신접종자도 실내서 마스크 착용

델타변이 백신 접종자도 다른 사람 감염시켜 감염을 높은 타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스크착용에 대한 정책이 또다시 바뀐다. CDC는 2개월전인 5월 백신접종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나 27일 다시 마스크 착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백신접종자들이 델타변이에 의해 면역을 뚫고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CDC는 마침내 마스크 착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CDC는 올 가을학기부터 모든 교사들과,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 방문자들은 백신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지난주만해도 CDC의 대변인은 지난 5월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 했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인 25일 주요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

해 새로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5월 백신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에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성급한 것 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었다.

당시 CDC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2가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었다. 백신 접종자들의 감염이 극히 낮았으며 또한 감염병의 전파도 낮았다. 또한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백신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CDC는 화이자 및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두차례 접종시 94%효과적이었으며 한차례 접종에서 82% 효과적

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본격적으로 인도발 델타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기 전의 실험 자료였다.

월렌스키 국장은 “최근 집단 감염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델타변이는 지금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염이 심각한 곳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델타변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에 따라 기존의 지침을 바꿀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델타변이의 경우 백신 접종자의 코와 목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수준이 비 백신 접종자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수준과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 자료는 100 샘플로부터 최근에 나온 것이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스러웠다” 고 밝혔다.

한마디로 “백신 접종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며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CDC의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과 더불어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 CDC 질병 조사관 알리 칸 박사는 “모든 비 백신 접종자들을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했다면 이와 같은 재유행은 없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대학 로렌스 고스틴 공중보건법 교수도 이와 유사한 결론

을 내렸다.

“CDC가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이는 분명하게 예측되던 일이었다. 지금의 유행은 그래서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CDC의 분류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 서퍽, 브리스톨, 반스터블, 맨터킷 그리고 듀크는 “매우 높음” 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증해 하루 평균 5만7천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2만4천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다!

면역력 재충전

우리 경제가 다시 열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가지! 정관장으로 면역력 재충전!

홍삼정 240g + 1개 구입시 30g 증정 / 3개 구입시 120g 증정

자녀용 제품 할인
1개 구입시 5% / 2개 구입시 10% / 3개 구입시 15% + 아이키커 증정



정관장 면역력 재충전 이벤트!

행사기간: 7월 16일 - 8월 8일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FedEx



매사추세츠 중부에 위치한 타운 하드윅(Hardwick)의 경우 7월 22일 현재 단 35%의 주민들만 백신접종을 완료해 매사추세츠 최저를 기록했다

일부 매사추세츠 타운들 백신 접종을 극히 낮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주의 백신 접종율이 미국내에서 버몬트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커뮤니티의 접종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중부에 위치한 타운 하드윅(Hardwick)의 경우 7월 22일 현재 단 35%의 주민들만 백신접종을 완료해 매사추세츠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약 63%의 매사추세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하드윅 타운 니콜 파커 총무는 “하드윅은 한번도 고위험 레드존이 되었던 적이 없다” 며 “6월 21일 이래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율이 50%가 되지 않은 타운은 하드윅뿐만 아니다. 레인스보로는 48%, 다투머스는 49%, 폴리버는 47%, 뉴베드포드는 42%, 리호보스는 47%, 시콩크는 48%, 로랜스도 48%, 오렌지는 49%, 홀요크 48%,

사우스윅 49%, 스프링필드 43%, 웨스트 필드, 48%, 웨일스 43%, 셸리 49%, 브락톤 46%, 미들보로 46%, 그리고 웨어햄 48% 등이다.

일부 타운은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을 장려하고 있다. 브락톤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학생들 백팩을 나눠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주정부는 백신밀리언 추첨을 통해 1백만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주정부는 2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베이커 행정부에 따르면 약 2백 10만여명이 백신밀리언에 등록했으며, 12-17세 장학금 추첨에는 14만명이 등록했다.

보스톤의 경우 이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태다. 현재 시 주민의 60.2%인 40만8천756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미국 전체 백신 접종율은 28일 49.3%로 여전히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베이커, 매사추세츠는 달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해

▶▶1면에 이어서
로 인해 833명의 양성판정을 받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했었다.

또한 CDC는 28일 5개 매사추세츠 카운티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인용하며 실내에서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CDC는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모든 연방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도록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코로나검사를 거쳐야 한다. 뉴욕의 경우 지난 2주간 확진자가 150% 증가하고 병원 입원율도 69%나 상승하자 쿠오모 주지사는 주 공무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메인주의 제넷 밀스 주지사도 28일 고위험지역의 실내공간에서는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현재 CDC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여행제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주 전체의 방역지침의 변경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베이커는 현재 학교의 마스크 규정에 대해서는 올 가을 학기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칼리지 국제공중보건프로그램소장이자 현 소아과 의사인 필립 랜드리건 박사는 미소아학회처럼 학교의 마스크 의무적 착용을 권장했다. 랜드리건 소장은 “미소아학회가 권장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단점은 전혀 없다” 고 말하고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28일 “연방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지침을 발표한다. 매사추세츠는 다른지역과 정말 다른 곳이다.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접종율이 높으며 두번째로 병원입원율이 낮다” 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들도 매사추세츠가 미국내에서 다른 주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히드 바텔리아 보스톤대학 감염병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우리는 주 전체로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만

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고 말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이는 올가을 아이들의 학교 등교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바텔리아 박사의 가장 큰 우려는 대형 실내 공연장 등의 재개다. 그는 주정부가 대형 실내 공연의 경우 좌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모든 방역조치에 대한 제한을 5월 29일자로 해제했다.

랜드리건 박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약간 복잡한 상태다. 백신 접종율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감염이 증가세에 있다” 고 말했다.

CDC의 마스크 정책에 따르면 서퍽(보스톤, 첼시, 리버, 윈스랩), 브리스톨(폴리버, 뉴베드포드, 토톤, 애틀보로), 반스터블(케이프코드, 폴머스, 샌드위치, 데니스), 난터킷 그리고 듀크(마타스베너드) 등의 지역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토록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요 클리닉' 6년 연속 '최우수 병원' 선정

"환자요구 충족 최우선"...'메이요 클리닉' 6년째 美 최우수 병원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선정...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소재 1,2위 다투던 매스제너럴(MGH)은 5위로 주저앉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이 올해 또다시 '미국 최우수 병원'으로 손꼽혔다.

평가 전문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2022 미국 병원 평가(Best Hospitals Honor Roll)에서 '메이요 클리닉'은 수술 성공률과 전문성, 의료환경 등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2012년 이후 7번째, 2016년 이래 6년 연속 1위다.

메이요 클리닉의 원장 겸 최고경영자(CEO) 지안리코 파루지아는 "무척 영광스럽다"면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고 말했다. 이 병원은 종합 순위 외에 당뇨 및 내분비학, 소화기 수술, 부인과, 비뇨기과, 호흡기 및 폐 수술 전문성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16개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종합 2위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이름을 올렸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순환기내과 및 심장 수술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종합 3위는 로스앤젤레스 UCLA 메디컬 센터, 4위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병원, 5위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MGH) 순이다.

이어 6위는 로스앤젤레스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7위 뉴욕 프레스바이테리언 병원, 8위 뉴욕 랑곤 병원, 9위 샌프란시스코 UCSF 메디컬 센터, 10위 시카고 노스웨스턴 메모

리얼 병원 등이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일깨웠다"며 "환자들이 각자 필요에 맞는 좋은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30여 년째 최우수 병원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약 5천 개 병원을 평가해 '톱 20' 병원을 선정하고 분야별 순위를 매겼다.

전문성 평가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척추 수술·당뇨병·심장마비·고관절 골절·신부전·폐렴·뇌졸중 등 6개 부문이 추가되며 총 17개로 늘었다.

한편 이 매체는 "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 등 대도시권에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집중되었으나, 지역별 평가에서는 플로리다주 팰만들, 캔터키주 블루그래스, 아칸소주 오자크 등 소도시에 위치한 병원들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화이자 백신, 접종 6개월 후 예방효과 96%에서 84%로

중증 예방효과는 97%, 전문가 "2번 접종으로도 충분하다는 뜻"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는 84%의 예방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의학저널 출판 전 사전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논문에 저자로 참여한 뉴욕 주립대 스테픈 토머스 교수 등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만4천 명의 자원자를 관찰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개월 후 예방효과는 96%였지만, 6개월 후에는 84%로 떨어졌다.

다만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자 중 6개월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

증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97%로 높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의 폴 오피트 위원은 연구 결과에 대해 "백신 접종 6개월 후 중증환자가 3%에 불과하다는 것은 화이자 백신 2번 접종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화이자처럼 mRNA(전령 RNA) 기술로 백신을 제조한 모더나는 자사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후 예방효과가 90%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koman@yna.co.kr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구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26일 오후 3번도로 베드포드 지역. 안개가 낀 것처럼 하늘이 연기로 뿌연게 덮여 있다

서부 산불로 매사추세츠 공기오염 경보 발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서부와 캐나다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매사추세츠의 공기의 질이 나빠져 상당수의 카운티에서 '유해(unhealthy)' 수준으로 바뀌었다.

매사추세츠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26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산불로 공기의 질이 나빠져 미세먼지가 '유해' 수준까지 격상됐다고 밝혔다. 단 플리머스, 브리스톨 케이프 등 남동부 지역은 이 경보가 적용되지 않았다.

미 기상청도 공기의 질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경보는 27일 0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로부

터의 미세먼지가 날라와 보건부는 매사추세츠 남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7일 0시까지 공기의 질이 경보를 발령했다" 고 밝혔다.

27일 보스톤과 매사추세츠 하늘은 뿌연 안개 같은 연기가 가득 차 일부 소방서에는 화재 발생을 착각한 전화까지 접수됐다.

우스터 소방서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화재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부 매사추세츠에는 스모그가 가득 차있고 연기 냄새가 나는 데 이는 서부지역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환경부 온라인 공기의 질 추적에 따르면 26일 상당수의 지역의 공기의 질이 "유해" 또는 "

민감한 그룹에게 유해" 로 표시됐다. 민감한 그룹은 심장 또는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같은 그룹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거나 휴식을 자주 취하고 응급치료를 휴대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조언했다.

DEP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해 등의 경보가 뜬 지역은 첼스포드, 치코피, 해버힐, 린, 노스아담스, 피츠필드, 그리고 우스터 등지이다.

서부의 산불은 7월 14일부터 시작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총 18만1천 에이커가 불탔으며 레이크 알마노, 플러마스, 버트 카운티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매사추세츠 평균 신용카드 빚 \$192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평균 \$1,928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있으며 이는 미국내 전체 21위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웹사이트 월넷허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카드 금액을 모두 갚는데 11개월 28일이 소요되며 이자로 \$156을 지급했다.

신용카드 빚이 가장 낮은 주는 사우스 다코다로 평균 \$1,454이었다. 그 뒤로 몬태나, 미시시피, 앨라바마, 하와이, 뉴욕 순이었다. 빚이 가장 높은 주는 앨라스크로 \$2839의 빚을 보였다. 이어 몬태나, 워싱턴 DC, 콜로라도, 버몬트 순이었다.

월넷허브는 이번 신용카드

빚을 집계하기 위해 크레딧유니온, 연방준비은행, 샌서스뷰로 그리고 월넷허브 신용카드 상환칼렌더 등을 사용했다.

2021년 초 미국인 전체는 약 9천억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있었으며 이는 지난 팬데믹에 기록적인 신용카드 빚 청산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간 적어진 금액이다. 그러나 월넷허브는 이 신용카드 빚은 2021년 약 60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말 신규확진자 1243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주말 동안 신규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의 기로에 놓였다.

주보건부에 26일 3일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확진자는 1,243명이 추가돼 누적확진자는 669,647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누적사망자는 17,68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145명으로 증가했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는 32명이며, 인공호흡

기를 통해 호흡을 보조하고 있는 환자는 14명이다. 7일평균 양성확진율은 1.65%로 1주 전 1.02%에서 늘었다.

신규확진자는 20-29세 연령대에서 6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524명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연령대에서 15-19세는 152명, 10-14세는 161명, 5-9세는 122명, 0-4세도 117명으로 감염자 수가 많았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강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인생을 180도(?) 바꿔주는 아침 힐링요가

오늘 나의 하루의 질을 결정해주는 아침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는 고요한 새벽, 혹은 아침 공복에 편안하게 따라하기 좋은 스트레칭 시퀀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매일 18분만 본인에게 투자해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내 몸과 마음에서, 또 내 삶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나를 위한 여섯번째 이야기를 찾아 꼭 따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 배울 자세는 한다리를 옆으로 뻗은 side stretching입니다. (몸통 옆면, 허벅지 안쪽)

STEP 1. 앉은 자세에서 왼다리를 바깥으로 뻗어줍니다.

STEP 2. 들숨에 오른손을 천정쪽으로 보내고 날숨에 손을 왼쪽으로 뻗어줍니다.

POINT!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눌러주시고 가슴도 바닥이 아닌 정면이나 하늘을 향해 열어주세요

STEP 3. 숙련자들은 손으로 발을 잡아줍니다. 단 절대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몸 옆면을 늘려주세요.

STEP 4. 영상을 따라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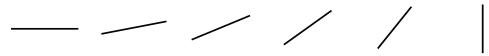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2020 도쿄 올림픽

'동양인도 할 수 있다' 보여준 황선우 "후련합니다"

(도쿄=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수영의 역사까지 새로 쓰고 난 황선우(18·서울체고)의 첫 마디는 "후련하다"였다. 황선우는 29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82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다.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일본의 스즈키 히로시(은메달)가 마지막 메달을 딴 이후 69년만의 최고 성적이었다.

황선우가 결승 출발대에 선 것 자체가 체면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오른 것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아시아 선수로도 1956년 멜버른 대회 때 일본의 다니 아쓰시 이후 65년 만이다. 다니는 당시 7위를 차지했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황선우는 "일단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와 200m 레이스를 다 마쳐서

너무 후련하다"며 웃었다. 황선우는 전날 준결승에 이어 이날 결승에서도 케일럽 드레슬(미국)과 나란히 레이스를 펼쳤다.

드레슬은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각각 7관왕, 6관왕에 오르며 두 대회 연속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세계적 스타다.

드레슬은 이날 47초02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우는 "어제 경기보다는 오늘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멋진 선수들과 같이 뛰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

자유형 100m는 터치 싸움으로 순위가 갈리는 종목이니만큼 황선우는 "전략은 따지지 않고 그냥 온 힘을 다하자"는 것이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자유형 200m 경기 뒤로는 계속 지쳐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참고 최선을 다하니 좋은 기록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준결승을 앞두고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던 그는 "어제는 그래도 그제저보다는 잘 잤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이날 아쉬운 부분으로 출발 후 돌핀 킥으로 물을 헤쳐나가는 잠영 구간을 꼽고 "앞으로 훈련하면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선우가 이날 비뚤던 순위는 몇 위였을까?

그는 "자유형 100m는 결승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와 200m와 관련해서는 "100m는 스피드감이 있으니 정말 재밌고, 200m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리라 두 종목 다 애착이 간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덩치를 키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력을 올리면 더 나아진 기록을 내리라는 기대도 한다. "100m는 단거리여서 선수들이 몸이 다 엄청나게 크고 좋다"면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몸을 키워야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자신이 수영을 잘하는 비결을 묻자 잠시 웃으며 머뭇거리더니 "물타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서양인처럼 큰 몸은 아니지만, 동양인의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제2의 박태환' 등의 수식어가 따르는 데 대해서는 "같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면서 "황선우라는 선수도 많이 기억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8명의 선수 중 가장 빨랐던 출발 반응 속도(0.58초)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다.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는지 묻자 '있지(ITZY)'를 꼽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응원한다고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이제 자유형 50m 경기만 남겨놓았다.

그는 "50m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종목이 아니다. 생각을 비우고 후련하게 뛰고 싶다"고 밝혔다.

www.ksneusa.org (1975~2021 개교 46주년)

***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 - 2021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2세 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 2021.9.18 ~ 2022.1.22

▶ 가을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신입생 소집(온라인): 9월 4일(토)~9월 11일 (각 과정별로 인터뷰/평가 진행)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병아리반(9월 기준 2.5~3세) 기초1(해님 & 달님반/3.5~4세) : 선착순 배정

▶ 대면수업 때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오크힐 중학교)

▶ 온라인 수업 학급 주소: 각 학급별 온라인 교실에서 수업 진행

▶ 등록기간: 2021년 8월 15일(재학생), 8월 31일까지 (신입생)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과정별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음

(1)오전반(9:30am-12:40pm)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작문교육(1-5반)
음악교육•사물놀이•종이접기 교실 등 전통 및 문화교육

(2)오후반(대면수업 시작 후 등록 가능): 미술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 Late Fee \$20

(1) 오전: \$340/1인 \$620/2 \$770/3인

(2) 병아리반: \$180

(3) 성인반: \$230

→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

한글교육•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모집 부문: 유아 교육•한글•문화•음악교육•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교사지원은 아래 연락처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508) 523-5389(C), 카카오톡 ID: KSNEUSA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함께 써 주십시오.

한글이름(1): _____

영문이름 _____ 학생 이메일: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21년):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 (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오전수업) (병아리반: \$180, 성인반: \$230)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후원자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비영리 교육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서 2세 교육을 위해 후원해 주신 기부와 후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전일생은 미인 소필 (언제든 뉴 잉글랜드) 일찍 등록하면 가질 수 있는 학생에게 특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미국 마이애미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

미국 2분기 성장률, 6.5%로 전망치 하회... "실망스런 속도"

연율 아닌 분기 성장률은 1.6%로 4분기 연속 플러스...개인소비 12% 상승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이 견고한 경제 회복세를 이어 갔으나, 시장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남겼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6.5%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율 아닌 분기 성장률은 1.6%다.

미국 2분기 성장률, 6.5%로 전망치 하회... "실망스런 속도" (종합) - 2 이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밑돈 결과다. 블룸버그통신과 다우존스가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모두 8.4%였다.

지난 1분기 6.3%보다는 다소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1분기 성장률은 종전 6.4%에서 이날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해 CNBC방송은 "실망스러운 속도"라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평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거의 가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기 조차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2분기 GDP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분기 GDP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소비 지출은 2분기에 11.8%(연율) 급증했다.

수출 증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도 2분기 성장을 견인한 요소로 꼽혔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과 주거용 투자 등의 감소가 2분기 성장폭을 제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3분기 이후에도 미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유행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다. firstcircle@yna.co.kr

미 연준, '제로금리' 동결... "경제 진전 있지만 자산매입 계속"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시간) 현행 '제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관심을 모으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 1년 넘게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월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의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800억 달러의 미국채,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고 있다.

다만 연준은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일정 기간 2% 이상의 물가와 완전 고용 목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작년 12월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

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 이후 경제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향후 회의들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차기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미 경제가 계속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델타 변이가 경제 성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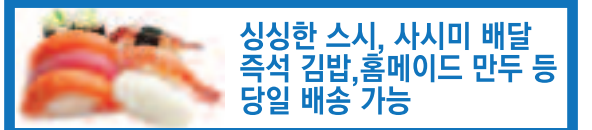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4%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초안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조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 시장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MBS 매입만이라도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준 일부에서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고위 인사들이 늘면서 연말 또는 내년 초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rstcircle@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들, CDC 마스크 지침 거부... "과학 아냐"

코로나 확산에도 "마스크는 의무 아닌 선택 사항" 주장 NYT "CDC 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주 정부 결정에 좌우"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미국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했다.

미국 보수의 진지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아칸소 주지사 등은 CDC 지침을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도 내놓았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은 미국 전체 카운티의 63%를 차지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이끄는 주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CDC를 비난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텍사스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대변인은 성명에서 "CDC 지침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마스크 의무화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징후는 없다"

고 반발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CDC 지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고,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CDC 지침은 "상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CNN 방송은 자체 집계를 통해 텍사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오와, 조지아,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몬트 등 최소 9개 주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NYT는 "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라며 "CDC 지침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달려

있고, 그 결정은 지역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전했다.

편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 현황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만740명, 사망자는 462명으로 집계됐다.

jamin74@yna.co.kr

미국내 아시아계 대우 만족도 급락... "미국인 46%만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미국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내 성인 1천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아시아인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대유행 기간 미국내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작년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갤럽의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백인의 절반, 히스패닉의 44%가 아시아계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아시아계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한 흑인은 30%였다.

인종 간의 관계 인식 조사에서는 '백인과 아시아인 간 관계', '흑인과 아시아인 간 관계'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좋다고 답한 미국인은 각각 67%, 58%로 나타났다.

이는 둘 다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33%만이 그들에 대한 대우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미국인의 53%는 미국 사회의 여성 대우 정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유대인 대우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백인에 대한 대우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68%였다.

흑인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38%로 나타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던 작년의 사상 최저치 35%보다 조금 올랐다.

갤럽은 미국인들은 아시아인 받는 대우보다 이민자와 흑인이 받는 대우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갤럽은 미국 성인 인구의 인종 비율을 반영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한 상태로 대선 출마하겠다"

내주 입당 보도엔 "틀렸다고도 맞다고도 볼 수 없어" 줄리 벽화에 "배후 있다...여성 인권 문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국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국민의힘과 손잡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 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정권교체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당 시점에 대해선 "입당 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과 소통하고,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는 "그 보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맞다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다 원팀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위원장이 꺼낸 '11월 입당설'을 참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 번 짧게 배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듣지 못했다"며 "결정은 제 뒷"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회동 제안에 대해선 "제가 어느 정도 거취를 정하게 되면 뭐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지금 봐도 특별히 나눌 얘기도 많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올라가면 기분이 괜찮고 내려가면 왜 이런가 싶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도 어우러져 있고, 저도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해 고집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격려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생각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치고 나오시니까 결과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권 주자들이 자신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데 대해선 "검사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필드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분들이 경제 사건 다루는 검사 생활

을 안 해봐서 그런 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풍자한 이른바 '줄리 벽화'에 대해 "그림 그린 사람이 혼자 한 행위라고 봐야 하나"라며 "저 사람들 배후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과거부터 민감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다"며 "제가 법적 대응을 했으면 1만 건도 더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고소전으로 맞서는 배경과 관련, "가족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4.7%, 이낙연 전 대표가 20.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3%로 집계됐다.

박용진 의원 5.6%, 정세균 전 총리 4.1%, 김두관 의원 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지사는 2주 전보다 2.8%포인트 상승했고, 이 전 대표는 4.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격차는 6.4%포인트에서 13.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권 적합도...국힘 지지층서 尹 1위, 최재형 2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 중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알앤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2명을 대상으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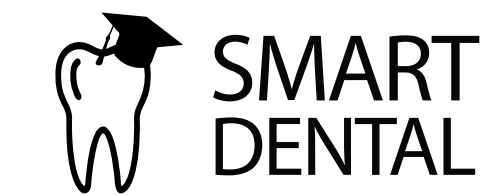
검찰총장 33.0%,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3.3% 최 전 원장 7.1%로 집계됐다.

2주 전과 비교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홍 의원은 1.1%포인트, 최 전 원장은 1.9%포인트 각각 올랐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

(6.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7%)를 제치고 2주 만에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으로 좁혀 보면, 최 전 원장은 11.2%로 윤 전 총장(61.6%)에 이어 2위였다. 2주 전의 3위(7.7%)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LY 30th - AUG. 5th,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Korean Melon 황금싸라기참외 \$19.99 BOX	Papaya 파파야 \$0.99 LB	Idaho Potato 아이다호감자 \$0.79 LB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수박 \$7.99 EA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버섯 PRODUCT OF KOREA 2\$5 FOR 10.58 OZ /PKG	Kabocha 단호박 \$0.99 LB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1.49 LB	Packed Garlic 마늘 2\$3 FOR 5 CNT /PKG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4.99 PKG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U.S.D.A. CHOICE \$9.99 LB	Fresh Ox Tail 생소꼬리 \$11.99 LB
Fresh Pork Single Belly Chunk 수육용 생삼겹살 \$6.99 LB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슬라이스 삼겹양지 \$9.99 LB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2.99 LB	Frozen Spicy/Teriyaki Sauce Chicken Skewers 냉동 데리야기/불닭꼬치 닭꼬치 \$6.99 10-11 OZ/PKG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냉동 틸라피아 필렛 \$4.99 LB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새우 30-40'S \$5.99 LB
TONGTONGBAY Frozen Yellow Croaker 통통배 냉동 참조기 \$4.99 300-400'S/LB	Frozen Norwegian Mackerel 냉동 노르웨이 고등어 400-600'S \$2.99 LB
Frozen Baby Octopus 냉동 쭈꾸미 \$5.99 16-25'S LB	Fresh Monkfish Tail 아구 몸통 \$2.99 LB <small>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small>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H MART SMART CARD ONLY HAO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갈비 \$14.99 2.5 LB
H MART SMART CARD ONLY HAO Zaru Soba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해오름 메밀국수 \$3.99 3 LB	H MART SMART CARD ONLY NAMYANG French Cafe 남양 프렌치 카페 \$9.99 100 CNT /PKG

KYONG GI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29.99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생된장 6.17 LB \$6.99	HAIOREUM Brewed with Kelp Soy Sauce 해오름 다시마 간장 60.87 FL OZ \$4.99	ARIZONA FI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 파우더 1 LB 2\$5 FOR
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5.29 OZ X 4 CANS /PKG \$8.99	CHUNG JUNGONE Luncheon Meat (Pork) 청정원 런천미트 12 OZ \$2.99	CHONG SOO Oriental Style Noodle 청수 물냉면/비빔냉면 MUL/BIBIM/25.4 OZ \$3.99	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살 새우까스 16.93 OZ \$5.9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이게 치킨 12 OZ \$5.99
CHORIP 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초립동이 손생선살 종합어묵 1.1 LB \$2.99	CALBEE Fruit & Granola 칼비 후루그라 17 OZ \$5.99	Silicone Popsicle Mold 실리콘 아이스크림틀 6구 BLUE/PINK/GREEN MIX(6 PCS) \$5.49 ←\$7.99	Surlasang Ga-on Ih Wokpan 수라상 가온 IH궁중팬 26 CM/EA \$29.99, 28 CM/EA \$31.99 \$22.99	Melamine Garden Flower Decor Tray 멜라민 가든 플라워쟁반 M(37.5 CM X 25.5 CM) L(43 CM X 29 CM) TRAY \$3.99, TRAY \$5.99 \$2.99 \$3.99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 품질의 재료와 전통적인 제조법을 다해 만들어낸 최고의 김치입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 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희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2 베드 콘도 렌트

Highly Desirable North Waltham/ Lexington Line Walk to shopping Plaza
파킹 1

Asking 월 \$2,000(렌트)



● 싱글 패밀리 하우스 매매

North Andover

Asking \$95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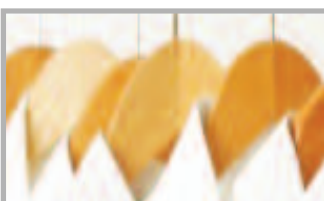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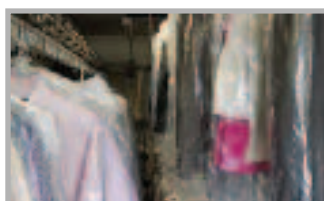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대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식당매매

높은 매상으로 수익보장, 팀워크는 직원들로 구성 식당 무경험자도 쉽게 운영가능 K-food 인기로 향후 매출증가 기대

Asking \$280,000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력,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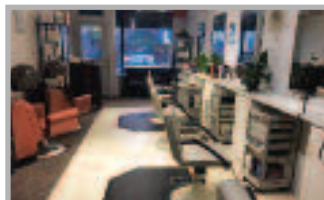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Price Reduced
급매 Asking \$40,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급매 원함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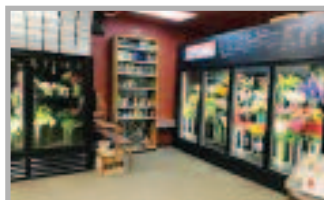
Asking \$320,000



●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드랍스토어

보스톤에서 30분거리 Haverhill 손쉬운 운영, 저렴한 렌트비 문의바람 978-494-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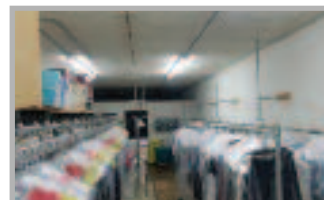
Price Reduced
급매 Asking \$30,000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Price Reduced
Asking \$80,000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최근에 켈리씨의 도움으로 보스턴에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mortgage를 얻는것도 모두 처음이었던 저에게 켈리씨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모든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지만, 켈리씨가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평일, 주말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빠르고 쉽게 대답해주시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 주셔서, 제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융자도 받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모든것이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도 Radius 의 안전한 시스템과 켈리씨의 상세한 도움과 설명으로 안전하게 모든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를 구하실때 켈리씨와 같이 일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으실겁니다. - S. Oh



Diana Yeji Kim
Boston Premier Realty
Phone 617.271.2037

최근 부동산 에이전트 다이애나 김의 도움으로 원하던 Bedford 지역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대출도 처음이라 모든게 걱정이었던 저에게, 다이애나씨는 항상 친절하게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말 밀착해서 케어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제가 offer를 했을때, seller와의 negotiation하는데 있어서 다이애나씨의 탁월한 능력과 솜씨가 아니었다면 다른 입찰자들을 제치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제 financial need 에 가장 적합한 loan officer 를 소개시켜주시고 팀으로서 협력해서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셔서 그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애나씨가 늘 구매하는 저의 입장에서 모든걸 생각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일을 같이 하는 내내 신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이애나씨 덕분에 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다른 분들께에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S. Oh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자신을 보호하면, 타인도 보호합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COVID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하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원팀 협약' 반나절만에...백제·날치기·탄핵, 명·낙 충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정수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낙연 전 대표가 또다시 충돌했다.

28일 오후 연합뉴스TV·MBN 공동 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첫 방송도론회에서다.

네거티브 진앙으로 지목됐던 '백제 발언', '노무현 탄핵 입장'을 두고 수위 높은 설전을 이어가며 치고받았다. 나머지 주자들도 가세하면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패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이른바 '원팀 협약'을 한 지 반나절만이었다. < 이낙연 "날치기 온당?" 이재명 "흑색선전 책임져라" >

포문은 이 전 대표가 먼저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관해 이 지사는 '날치기'라는 말씀을 했다. 그게 온당한 주문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듯하다"며 "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야당이 번복하니까 왜 합의를 번복하냐고 야당을 비판했다가 어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것이 진심이나"고 따졌다.

이 지사는 "법사위 양도를 합의한

것에 대해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바꾸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의견은 낼 수 있다.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오히려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며 "참여정부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가 상황 바뀌면 사면하지 말자고 했다. 언론 개혁도 반대하다가 또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냈다가 여론 역풍을 맞고 철회한 것을 비꼰 것이다.

지역주의 논란을 촉발한 이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이 전 대표의 '노무현 탄핵 찬반' 문제도 결국 소환됐다.

이 전 대표는 '최후의 한마디' 코너에서까지 '백제 발언'을 거론하며 "발언 녹음을 보내셨는데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인터뷰 발언 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지역주의 망령을 끌어낸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것,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흑색선전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 측근의 '유평머스 연루 의혹'도 부각했다.

< 명·낙 동시타깃 정세균, 秋 겨늘 김두관...곳곳 난타전 >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번갈아 공략했다.

정 전 총리는 "(백제 발언이 담긴) 인터뷰 원문을 여러 번 읽었다. 은연중 호남불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혔다"며 "이 지사의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 사람이 일하다 실언할 수 있다. 국민과 당원에게 잘못했다 사과

하고 털고 넘어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정 후보님께 인터뷰 원문도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전 대표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 (탄핵 찬성과 함께했던) 그때 행동을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무덤까지 갖고 간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유독 추미애 전 법무 장관에 화살을 겨눴다. 그는 "핑 잡는 매가 되겠다고 했는

데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한다. 그럼 누가 핏이냐"며 "대통령이 추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것은 검찰 개혁하고 윤석열을 잡으라고 한 건데 결국 징계도 못하고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쟁터에 갈 때는 늪 같은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패잔병으로 온 것 아니냐. 2개월짜리 징계를 왜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추천 장관은 "그 징계의 결서를 대통령이 재가했다. 방대한 양의 의결서를 읽어보면 해임에 상당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보시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 gorious@yna.co.kr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전상품 1년 약정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44) 주식시장 예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 예측은 모든 투자자의 관심사이다. 금융에 종사하는 미디어의 최대 관심사 역시 미래의 주식시장 움직임일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예측은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롭게 작용한다.

최근 미국의 최대 은행이란 불리는 웰스 파고의 전 최고경영자(Richard Kovach)는 CNBC에 출연(7/22/2021)하여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주식시장이 20% 폭락한다고 예측했다. 방송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방송사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모아야 회사의 수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예측은 특이한 일 아니다. 주식시장의 기본이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했기에 하락하는 사이클은 당연한 이치이다.

많은 투자 방송, 잡지, 재정신문, 인터넷, 등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며 기사화한다. 여기에 소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도 끊임 없이 주식시장을 예측한다. 방송 등에 나와

서 전문가가 '나는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방송 인터뷰는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후(Yahoo Finance)에서 23명의 주식전략가(Stock Strategists)가 2020년 새해에 주식시장을 예측했다. 23명 중에서 주식시장 지수(S&P 500)가 3,500 이상으로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 대부분이 그 이하로 예측했다. 이런 예측이 3개월 후 코로나로 35% 하락했기에 맞는 듯했지만, 연말에는 주식 시장 지수가 3,756 (12/31/2020)으로 마감되었다. 주식전략가라는 전문가 모두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며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뜻이다.

주식시장 예측이 간혹가다 맞아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Luck)이 좋았을 뿐이지 어떤 탁월한 머리카나 기술(Skill) 때문이 아니다. 죽은 시계도 정확히 하루에 두 번은 정확히 맞추는 거와 비슷하다.

미국에서 화폐 통화와 이자율 등을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버냉키(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

사에서 "과거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 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을 예측했을 때 맞아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대부분은 투자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번다.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은근히 말한다. 금융회사는 주식 예측을 회사의 마케팅(Marketing) 전략으로 이용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투자자가 여기에 현혹된다.

우리가 조절(Control)할 수 없는 것은 멀리하고, 본인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인이 봉급 일부를 매달 투자(Dollar Cost Averaging)하는 것처럼 개인이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매달 \$500씩 자동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0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씩 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 7%로 계산하여 \$6,0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불로 불어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식시장 하락 혹은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항상 폭넓게 투자해야 한다. 요즘 뜨거운 몇 개 회사가 몇 년 후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 500대 기업(S&P 500) 혹은 3,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전체(Total Stock Market)에 투자하면 위험성은 크게 적어지고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지난 10년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14%라는 높은 수익률이다.

여러 미디어 혹은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의 주식시장 예측을 참고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시장이 창출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1세 풍월주風月主 선품공善品公(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81년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흠돌의 난' 을 진압한 신문왕은 정권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무관 진골세력을 많이 숙청하였다. 반란진압에 크게 조력한 왕의 어머니 자의태후도 그간 쌓여온 화랑도의 어지러운 낭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김염장이 풍월주로 재임(621 ~ 626년)할 당시부터 염장에게 첩을 제공하면서 득세하기 시작한 찰씨(察氏) 가문은 그 후로도 풍월주를 비롯한 진골세력(진골정통 및 대원신통)들에게 첩을 제공하면서 낭주의 직위를 독식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들은 풍월주에 버금가는 위세를 떨치면서 낭정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일례로 24세 천광공이 풍월주로 있을 때(643 ~ 647년)는 딸을 염장공에게 첩으로 준 가야낭주의 우두머리 찰인(察忍)은 이미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도 대노두(大老頭)로 있으면서 처첩과 자녀가 백명이나 되었고 출타시 행차는 완전히 상선(전임 풍월주)과 같았다. 대노두, 대노두(大老頭) 등 낭주의 우두머리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향락과 위세가 681년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니 화랑도의 낭정은 가히 어렵고 혼란스러웠다. 그런 와중에 정계에

는 23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군관이 상대등의 위치에 있었고(신문왕은 즉위와 동시에 그를 병부령으로 강등시켰다), 문명왕후의 조카이자 27세 풍월주를 지낸 김흠돌은 외척의 세력을 과시하며 이미 딸을 태자빈으로 출가시키고 있었다. 즉 정명태자는 김흠돌의 딸을 빈으로 맞았으며, 681년 신문왕으로 즉위하면서 그녀는 왕후가 되었다. 가야과 찰인을 비롯한 그들의 아들과 족척들은 화랑도의 낭두직을 독식하며 떨친 위세는 목불인견이었고, 또한 일부 풍월주를 지낸 진골무관들은 정계와 외척으로 득세하고 있었으니 화랑도의 낭정은 어지러워지고 왕권은 위축되고 있었다. 이에 위협을 느끼며 정세를 파악한 자의왕후는 남편 문무왕의 병세가 악화되자 복원경(현 원주)을 지키고 있던 김요기를 왕성으로 불러들여 호성장군에 임명하였다. 문무왕은 681년 7월 1일에 사망하였고, 곧이어 문명태후(무열왕 김춘추의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고 사료된다. 그녀는 681년 사망했는데 정확한 날짜의 기록은 없다). 그리고 동년 7월에 즉위한 신문왕은 상대등 김군관을 병부령으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동년 8월 8일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가 김흠원, 진공 등과 도모한 역모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후견인이자 이모인 문명태후가 죽고 또한 김군관의 강등을 보면서, 왕의 장인이긴 하지만 자신의 목도 서서히 조여움을 느끼고 반란을 꾀했다고 보여진다. 자의태후의 명으로 왕성에 와있던 호성

장군 김요기를 비롯한 순지, 개원, 당원, 원수, 용원공 등이 반란군을 1주일 만에 진압하였다. 김흠돌을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병부령으로 강등된 김군관도 며칠 후 장남과 함께 참수되었다(사약을 받았다). 동시에 왕후로 있던 김흠돌의 딸 김씨도 폐비되었다. 진압군에는 수많은 화랑도들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자의태후는 화랑도를 폐지하기로 결심하였다. '김흠돌의 난' 주동자들이 풍월주 출신인데다가 동원된 반란군 중에 무수한 화랑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낭주의 수도 문제이지만 역모가 낭정에서 나왔기에 화랑도의 존재가 왕권에 위협이라고 보았다. 특히 상선(전임 풍월주) 들은 무사에 능한 낭도들을 사병(私兵)으로 데리고 있었기에 언제 또 역모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보여진다. 그래서 김요기로 하여금 낭도郎徒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여 모두 병부(兵部)에 속하게 하고 각자 그에 맞는 직(職)을 주었다. 이렇게 왕경의 화랑도는 폐지되고 낭도들에게는 병부의 직이 주어졌지만 지방의 낭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제도와 풍속은 다시 왕경으로 들어왔다. 자의태후는 중신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나 고물었고 중신들은 비록 화랑도는 폐지되었으나 화랑도의 좋은 풍속들, 즉 풍류를 즐기고 무예를 연마하며 인격을 도야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니 오래된 풍속을 갑자기 폐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대답

하였다. 그래서 자의태후는 득도하여 국선(國仙)이 되는 것은 허락하였다. 결국 화랑도는 국선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졌고 풍월주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풍월주의 폐지와 함께 자의태후도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편 '흠돌의 난' 을 일으킨 김흠돌은 부모가 김달복과 김정희이다. 달복의 선대 가계는 전하지 않는데 정희는 김유신의 누이이다. 흠돌은 진광을 아내로 맞았는데 진광의 부모는 김유신과 영모이다. 영모는 김유신의 첫 부인으로 딸 진광, 신광, 작광, 영광, 그리고 아들 삼광을 낳았다. 그리고 김유신은 환갑년에 지소(부모는 김춘추와 문희이다)를 부인으로 맞아 원술, 원정, 장이, 원망을 두었다. 또한 흠돌의 처형(處刑)과 함께 흠돌의 딸인 신문왕의 왕후도 폐비가 되었고, 다시 맞은 신목왕후는 김흠운의 딸이다. 김흠운은 흠돌과 형제인데 누가 형인지의 기록은 없다. 신목왕후의 어머니는 요석공주이다(요석공주의 부모는 김춘추와 보희이다). 요석공주는 처음에 김흠운과 결혼했었는데 김흠운이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했기에 과부로 살다가 원효대사의 청혼을 받아 설총을 낳았다. 원효는 7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화랑의 증손자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한물 죽었죠?

이번주에 올해 1월달에 상담을 해 주었던 first time buyer를 만나기로 했다. 요즘 “한물 죽었죠?” 난 이런 질문에 답을 안 한다.

“보고 싶으신 매물 다섯개만 골라 보세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매일 내 회사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되어서 들어 간다.

보고 싶다는 다섯개에 매물을 받고 예약을 잡으려고 하니가 이중에 세개가 그 사이에 팔렸다.
난 이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이게 한물 죽은 현실이에요”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집을 사겠다고 오퍼 했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아직 마켓은 Demand 가 Supply 보다 많은 건 확실하다.
하지만 올해 봄 보다는 조금 나아진게 사실이다.
솔직한 표현으로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낮은 이자율로 여기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사상 최고에 가격을 의심하는 분들 두려워 하는 분들도 계속 것이다.
그럼 하루아침에 가격이 내려 가라? 또 그것도 아니다.
전문가로서 난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지금 렌트비 얼마나 내세요?
얼마나 이집에서 사실 생각이세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다가 올라 가면 파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에 유대인들을 부자로 만든 비결이다.
비싸다고 안 산다 보다는 이자율을 이용해서 투자를 꿈꾸고 올라가면 팔아서 이윤을 챙긴다가 맞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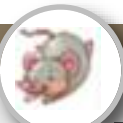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8월 1일 - 8월 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 운수: 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 금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 애정: 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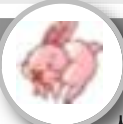
소띠 | 타이밍이 문제

● 운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애정: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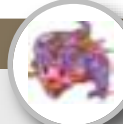
범띠 |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 운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 금전: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 애정: 누구나 어느 날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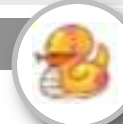
토끼띠 | 여유가 생기면서

● 운수: 단 하루라도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 애정: 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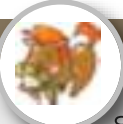
용띠 |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 운수: 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면 곤란합니다. 먼저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플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 애정: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5일 길일. 3, 6일 주의.



뱀띠 | 얼마든지 기회가

● 운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 금전: 실패를 여기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려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겠습니다. ● 애정: 좀 더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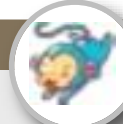
말띠 | 막혔던 일이 풀릴

● 운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이 풀릴 것입니다. ● 금전: 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애정: 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져 큰 일은 줄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양띠 | 한만큼 얻는 것이 있는

● 운수: 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 금전: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는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애정: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 7일 길일. 3,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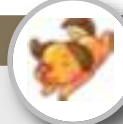
원숭이띠 | 뽀족한 해답을

● 운수: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뽀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미다미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밀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아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5일 길일. 1,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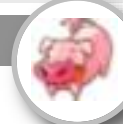
닭띠 |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 운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일이 성사 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불만족스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4일 길일. 2, 6일 주의.



개띠 |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 운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 금전: 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4일 길일. 1, 3일 주의.



돼지띠 |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

● 운수: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 금전: 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솔직히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1, 4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구합니다.
T. 781-457-8198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27-543-9656(Jam)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다시 BTS 이긴 BTS... '버터',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호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서 두 번 연속 1위 '버터'를 이뤄내는 진기록을 썼다. 앞서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다가 BTS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 1위 자리를 내줬던 '버터'(Butter)가 정상에 깜짝 복귀했다.

빌보드는 26일(현지시간)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5월 21일 발표된 '버터'는 발매 직후부터 7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뒤 지난주에는 차트에 첫 데뷔한 '퍼미션 투 댄스'에 정상을 넘겨주고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주 순위가 6계단 뛰어올라 다시 1위로 돌아왔다.

'퍼미션 투 댄스'는 7위를 기록하며 '버터'와 자리를 바꿨다.

핫 100에서 자신의 곡으로 1위 '버터'를 한 가수는 BTS가 14번째이지만 이전 1위곡이 바로 다시 정상에 복귀하는 기록은 유례가 없다.

빌보드는 "자신의 새로운 곡으로 1위를 대체한 직후 이전 1위곡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은 사례는 BTS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로써 '버터'의 통산 핫 100 1위 횟수는 8주로 늘었다.

올해 이 차트에서 최다 1위를 차지한 곡인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와 타이 기록이다.

BTS는 '버터' 첫 주 성적이나 나온 지난달 2일부터 지금까지 총 9주 동안 한 번도 다른 가수에게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SONG	ARTIST
1 Butter	BTS
2 good 4 u	Olivia Rodrigo
3 Levitating	Dua Lipa ft. DaBaby
4 Stay	The Kid LAROI & Justin Bieber
5 Kiss Me More	Doja Cat ft. SZA
6 Bad Habits	Ed Sheeran
7 Permission To Dance	BTS
8 Montero (Call Me By Your Name)	Lil Nas X
9 deja vu	Olivia Rodrigo
10 Save Your Tears	The Weeknd & Ariana Grande

로드리고의 '굿 포 유'(Good 4U)는 방탄소년단의 두 곡에 밀려 9주째 2위에 머물렀다.

핫 100은 음원 다운로드 및 실물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순위를 낸다.

10만 건이 넘는 높은 판매량을 다시 기록한 것이 '버터'가 핫 100 정상을 탈환하는 주요 동력이 됐다.

kimhyoj@yna.co.kr

유재석,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상 특이사항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개그맨 유재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안테나는 24일 "유재석이 오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전날 tvN 예능 '유크즈 온더블럭'(이하 '유크즈')의 스태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유재석이 출연 중인 tvN 예능 '식스센스2', SBS TV 예능 '런닝맨' 등은 촬영을 연기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stopn@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0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상록회' 어른들의 바깥나들이...

상록회(북부보스톤교회/회장 이기환)에서 7월 28일 뉴햄프셔 주 소재 셀리스베리 비치 스테이트 공원에서 2년이 다 되어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다. 북부보스톤교회(목사 최진용)를 위시해 주변의 교인들과 그 외의 어른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 시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젊은이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와 살아갈 날에 대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더라도 세상 나이 80~90에 이른 어른들의 연세에는 살아온 경험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 삶에 대한 지혜가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저 자연의 한 사람으로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말이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중에도 열심과 정성으로 함께 듣고 찬양하는 모습은 어린이와 같이 환한 얼굴이다. 바라보는 한 젊은이로서 참

으로 은혜로운 시간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본다. 세상의 욕심을 모두 떨궈낸 말간 마음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주평통고문이신 한윤영 어른께서 오셨고, 지난 한미노인회에 참석하셨던 민유선 수필가 선생님을 또 보니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이렇듯 어른들의 모임이 있어 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다. 이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손길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핑 돈다. 이기환 상록회 회장님과 그 외의 임원분들이 행사를 위해 머리 맞대고 의논하시고 실행하시는 모습에 감동이었다.

맛난 음식을 준비해주신 상록회 회원이신 하남출 권사님과 이정애 집사님 그리고 서영애 집사님(매사주세초한인회 회장) 그 외의 여러 임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몇 날 며칠을 어떤 음식으로 어른들께 맛난 음식을 대접할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시며 준비하신 손

길에 감사드린다. 오늘 상록회 모임에 100여 명 정도의 어른들과 봉사자들이 모였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다. 그야말로 참석 못 했으면 서운했을 일이다.

언제나처럼 음악 담당은 주종옥 권사님 몫이다. 누군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자리의 주인공이시다. 기타연주의 실력은 찬송가를 비롯해 그 어떤 장르의 것을 신청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다. 늘 환한 모습의 주 권사님은 그 웃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신다. 플로리다에서 오신 유영심 장로의 요가시간(건강체조)은 신바람이 절로 난다. 체조일까 싶으면 춤이고 춤일까 싶으면 요가이다. 동생을 보러왔다가 한미노인회 야외회와 상록회 야외예배를 참석하고 내일은 플로리다 집으로 가신다고 한다.

오늘 상록회에서 정말 월 새 없는 웃음을 지었던 것은 '김지영과 게임리더들'이었다. 김지영 권사님은 상록회 임원이기도 하지만, UMW(감리교여성선교회) 회장

이며, 교회 선교부장으로 바쁜 일정으로 봉사를 하는 분이다. 무겁고 커다란 그 많은 게임 장비를 자동차에 한가득 싣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게임 시작 전 청군, 백군 팀을 나누며 리더를 즉석에서 뽑았다. 청팀에 구영희 집사님, 윤경애 권사님 그리고 백팀에 장인숙 권사님, 테일러 최(한미노인회 총무)님이 맡았다. 어른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행사장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과 몸의 운동 요가를 하고 맛난 점심을 먹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한 테이블에 먹을 음식이 가득 쌓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쉽게 소개해드리면 김동원 치과 김원장의 어머님께서 상록회 회원으로 오늘 여러 어른들께 인사드릴 겸 특별히 떡을 주문하셨던 것이다. 그 외의 하남출 권사님의 맛난 삼색경단과 이재숙 장로님의 캐러케 과 맛난 쿠키는 상록회 어른들 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드리는 선물이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감사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손글씨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공서체. 한글 글쓰기의 전통적인 서체중 하나이다. 써내려간 글들은 유려해 보인다. 나역시 오래전 국민학교적 서예시간에 배운적이 있다. 쓰는 대신 개발새발 그릇던게 문제라면 문제였지만 말이다. 손글씨만은 선생님께 꾸중을 듣지는 않았다. 보기에 그닥 나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젠 손글씨를 쓰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그럴적에 손글씨를 연습하는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예 자판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글을 쳐대니 말이다. 우리집 아이도 다르지 않은데, 내눈엔 여영 못마땅하다. 하긴 나역시 손글씨를 쓰려하면 손이 먼저 떨려온다.

유명인이 등장하면 그들의 손글씨체도 화제에 오른다. 한국 야당 대표의 방명록 글씨체 이다. 한국신문 기사 타이틀인데, '뽀뽀뽀' 이라 했다. 유명인사는 한결갈

이 약필이라 하던데, 사진으로 볼적에 펜을 잡는 손은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독특해 보였고 신세대 한글체라 해야겠다.

이 세상의 방명록에 이름 석자 적는 것을 한사코 싫어하는, ...

저 구름의 독거獨居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 독거 중에서)

손글씨를 타하는 건 이미 지나간듯 싶다. SNS에서 글자를 치는 타자打字세대로 옮겨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괜찮은 글씨체도 연습이라 했다. 시작은 좋은 글씨를 보고 따라 써보는 거란다. 그렇다고 필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바, 지문과 같아 누구도 똑같은 필체

를 가질수는 없다는 거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이 되는 거란다.

손글씨체만 예술이라. 정치역시 예술이라 했던가. 화법으로써 예술일테고, 말이 먼저란 말일게다. 그럴적에 정치에서도 타협하고 화합하는 연습이 필요할수도 있겠다. 본인만의 온전한 정치예술을 완성하기 위한 수련일터.

젊어서 그런가. 한국야당 대표의 화법 역시 뭔가 다른 냄새가 난다. 남과 같지 않은 필체마냥, 다르게 보이는 거다. 그만의 정치법일터인데 여전히 진화중이라 해야겠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가 했다는 말이다. 부디 한국 정치판에도 젊고 싱그러운 바람이 일었으면 한다. 더욱 정진 하시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11)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유발하는 대표 질환 '메니에르병'

어지럼증·회전감 증상 나타나는 대표적인 귀 질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화... 조기에 치료 시작해야
재발이 쉽기 때문에 식습관 등 꾸준한 관리 중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이비인후과 신 동주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갑자기 ‘어지럼증’ 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있다. 특히 몸이 도는 것 같은 ‘회전감’ 을 느낀다면 ‘귀’ 질환 가능성이 높은데, 급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귀 질환 중 하나가 ‘메니에르병’ 이다. 1800년대 프랑스 의학자 ‘메니에르’ 는 발작적 어지러움, 이명, 이충만감, 청력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메니에르병’ 이라고 하여, 뇌가 아닌 내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는 2016년 957,680명에서 2020년 1,057,31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메니에르병은 주로 4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임신에 동반되는 호르몬 변화나 섬세하고 완벽한 성격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메니에르병’ 은 특이적인 진단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임상증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발작성 어지럼증과 청력저하, 이명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짧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이석증과 달리 메니에르병은 20분 이상 24시간을 넘지 않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임상증상과 함께 순음 청력검사 및 전기생리검사,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 타 어지럼증 질환과 비교해 감별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달팽이관 내 림프관 이상으로 인해 림프액이 지나치게 많 많아지면서 압박, 팽창하는 ‘내림프수종’ 으로 추정된다.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먹먹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 등 청력 이상과 이명, 이충만감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메니에르병’ 을 의심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한 급성 증상이 나타난 후 호전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적으로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 환자의 80~90% 정도는 급성기 및 만성기 약물치료와 함께 저염식의 식습관 관리를 해주면 증상이 호전된다.

갑자기 이명과 함께 극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급성기 질환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메니에르병 급성기에는 진정 억제제, 오심과 구토 억제제를 처방해 치료한다. 저염식으로 증상 호전이 안 되면 이뇨제 복용으로 수분 배출을 늘리 수 있다. 특히 급성 어지럼증 발작 시에는 심한 구토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장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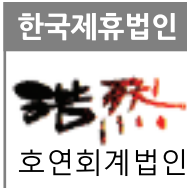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메니에르병은 일단 발생하면 5~6년 이상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예방 방법이 중요하다. 수분 배출을 방해하는 맵고 짠 음식과 카페인과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를 삼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메니에르병”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진수 씨는
검색을 하고**



**하나 씨는
예약을 하고**

**WINNIE 씨는
백신 접종소로
향합니다**



**오늘 진수 씨가 모두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세 이상이면 모두 COVID-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백신은 COVID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거의 100% 예방합니다.

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아껴냅시다**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치과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텍 [99만원 ~]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 5 미백 [30만원 ~]
- 6 전체틀니 [180만원 ~]
- 7 크라운 [40만원 ~]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 (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샛강역) / 옥스치과(강남역)
클라인치과 (압구정역) / SKY치과(역삼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등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 등등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  Tel : 070-4141-4040
-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  이메일 : huram@haram.kr
-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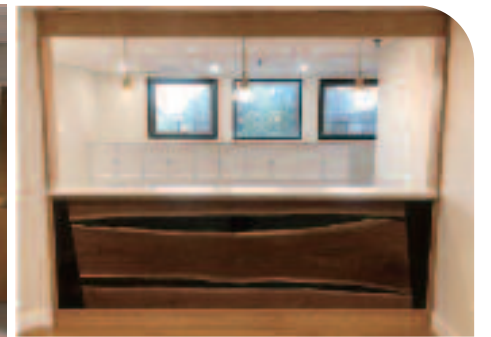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